

K-POP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의 도출 -교육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승현*

¹고려대학교 경제학과

Long term solution for K-POP globalization -Concentrating to the change in education system-

Seung-Hyun Cho^{1*}

¹Dept. of Economic, Kore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k-pop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의 일환으로, 현 실용음악 교육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논문이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이전에 비해 음악적으로는 물론 음향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고 k-pop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 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음악적인 자질 문제와 관계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많은 아이돌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실력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기획사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유망주 발굴을 맡기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대중음악도 클래식이나 국악과 같이 특성화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기초교육 부터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린나이에 학교생활에는 부진한 채로 소속사에 들어가거나 학원에서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음악을 배우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학업의 부진도 면하게 하여 지성인으로써의 면모도 갖추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와 교육대와 사범대에 실용음악교육과정의 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음악교육자 양성을 실시해야 한다.

Abstract This thesis urges the change of the education system of popular music for globalization of K-POP in a longer point of view Korean popular music has developed not only musically but also sound quality itself. Moreover it became popular in a global scale in the name of K-POP. However, it is still limited to idol music, and numerous issues related to the lack of musical talent are emerging Even though the routine of birth and death of several idol groups and singers are still repeated. Recently, the skills of artists enhanced due to audition TV shows but still it's not enough. Under this situa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rely on audition TV shows and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for picking up talented artists. Therefore, like Classic or Traditional music, schools concentrated for popular music must be founded. If this become enabled, young students going to entertainment companies or to unqualified but expensive private institutes will disappear. Moreover, it can prevent students from lacking behind in their academic activity. In addition, a reformation should be done education colleges for raising popular music educators

Keywords : K-Pop, Music, Education, Popular, Globalization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의 강대국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었고 k-pop 또한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상승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k-pop은 오늘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로도 널

*Corresponding Author : Seung-Hyun Cho (Korea University)

Tel: +82-10-2325-9686 email: dywj613@naver.com

Received April 17, 2015

Revised May 8,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리 퍼지고 있어 전성기라고 불릴 만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창출 및 경제 등에 많은 과급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맥락 속에서도 k-pop은 수많은 문제에 둘러 쌓여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아이돌의 음악성 및 실력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성의 결여이다.

최근의 아이돌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 그들의 컨셉은 다른 듯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그 형태가 닮아 있다. 이는 머지않아 해외 팬들에게 식상함을 안겨줄 것이다. 싸이의 등장으로 k-pop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 잠시나마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의 연구와 노력이 없다면 미래는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k-pop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볼 것이다.

1.2 k-pop의 정의

k-pop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k-pop(Korean Pop 또는 Korean Popular Music)은 본디 한국의 대중가요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Pop은 Popular의 약자로 ‘대중적인, 인기 많은’이란 의미다. 이처럼 k-pop은 넓게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좁게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음악 중 댄스·힙합·R&B·발라드·록·일렉트로닉 음악 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다른 뜻으로는 한국 외의 나라에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1] 사실 k-pop은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우리 곁에 대두된 용어로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가 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음악적 위세가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급속적인 성장에 반해서 음악적 기반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2. 교육체제의 문제

k-pop의 명맥을 지금과 같이 지속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적인 문제에 있다고 여겨진다. 클래식이나 국악과 같이 전통이나 명맥이 오래 이어져 온 음악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체제가 잘 잡혀있고 기초 교육의 영향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와 반대로 대중음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음악이며, 접근이 용이한 점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중음악은 실력의 유무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며 교육보다는 천재성을 비롯한 타고난 재능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체계라기보다는 이미 타고난 인재를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러한 상황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률은 저조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 태어나고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처럼 타고난 재능을 우선시하는 것 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용음악계에서는 인재를 직접 올바른 방법으로 양성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영재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k-pop의 질적·양적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체계라기보다는 이미 타고난 인재를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러한 상황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률은 저조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 태어나고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처럼 타고난 재능을 우선시하는 것 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용음악계에서는 인재를 직접 올바른 방법으로 양성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영재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k-pop의 질적·양적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 공교육화의 추진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련된 음악교육의 대부분이 음악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는 실력과 교수법 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과 선생들이 매우 많다. 게다가 수업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학원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중, 고등학교에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학교에 경우 물론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서 음악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만 실용음악을 정규 교과과목으로 가르치는 중학교는 거의 없다. 하지만 클래식과 국악의 경우 선화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전주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예원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전문 음악 교육을 기초부터 탄탄히 가르친다. 고등학교에서의 차이도 만만치 않게 크게 벌어져 있는데 실용음악과가 있는 예술고등학교는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교육환경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환경을 자연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용음악의 공교육화를 제시한다. 공교육화로 예상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학원을 다니며 레슨을 하게 될 경우 1시간 기준으로 한 과목당 한 달에 약 10~20만원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의 수업을 동시에 배우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원에서 배우는 과목만이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폭넓은 음악교육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의 공부와 별개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학과 공부에는 더욱 집중할 수 없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교육화의 추진은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검증된 강사로 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도 필자가 교육체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했듯이 학원에서의 수업은 강사들의 실력이나 교수법의 수준이 검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원이라는 사업체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의 진정성을 가지고 수업을 해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하지만 공교육화를 통해 교내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검증되고 실력 있는 강사들에게 배울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강사들을 뽑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비단 강사진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위에서처럼 보다 적은 교육비로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음악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Characteristic of the art high school curriculum						
- Specialized training -						
1. Courses: music history, listening, listening Sight, chorus, ensemble, major groups, the acoustic theory, computer music, jazz theory						
2. Concerts: regular concerts, presentations majors, concerto concerts, recitals improved, freshman Conference						
3.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Master classes, majors school teachers · secure,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s camp						
Division	Subject Name	1	2	3	4	5
Optional Activities	Sight listening	2	2			
	Musicology	1	1			
Mandatory professional	Sight listening		2	2	2	2
	Musicology		2	2	2	2
Professional choice	Music History		2	2		

Choral ensemble	1	1	1	1	3	3
Chamber Music	1	1	3	3	3	3
Music			2	2	2	2
Computer Music			2	2	2	2
Music Major	4	4	4	4	5	5
Total	9	9	18	18	19	19

Fig. 1. The characteristic curriculum sample of arts high school - referred to Ulsan Arts High School.[2]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악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소양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의 진행 방향이 실용음악위주가 아닌 클래식수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고전 음악이 음악의 기본적 소양이지만 실용음악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수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컴퓨터 음악이나 재즈와 관련한 과목 그리고 무대공연과 관련한 수업내용을 현재 학생들이 추가로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음악적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음악에 대한 깊이를 만들어 이들이 훗날 성장했을 때 더욱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어 줄 기반을 다져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대형엔터테인먼트 즉 대형 기획사 및 소속사가 중심인 기존의 연예인 육성체제로 부터의 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우 거대한 사업체이다. 한국 대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 YG엔터테인먼트(YG), JYP엔터테인먼트(JYP)의 매출은 최근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SM 매출액은 1643억원, YG 1057억원, JYP 1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SM 864억원, YG 448억원, JYP 102억원)보다 각각 135~67%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중대형으로 꼽히는 몇몇 기획사들까지 합한 4~5곳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3]

이처럼 대형엔터테인먼트 몇 곳에서 대중음악계를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가수들이 어린 시절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 이들에게 교육되고 키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소속

사들은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알고 있으며 변화의 흐름을 알고 주도한다. 그렇기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수들을 내보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과연 깊이 있는 음악을 충분히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엔터테인먼트는 가수가 인기 있고 어떻게든 유명세를 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지 음악을 얼마나 잘 알고 하는지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어린나이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는 숫자는 매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실력을 갖춘 뮤지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는 방송 등을 통해 보여 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도 기본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돌 그룹이 상당 수 활동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속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기와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속사의 트레이닝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4]

공교육화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체에서 학생들을 방송에 맞게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키워 내기 보다는 학교라는 보다 교육 중심의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며, 개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후일 기획사와에 계약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사와는 다르게 더욱 깊이 있는 기초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과 교육도 겸비하여 지성인으로써의 덕목도 갖추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대학의 역할

앞의 공교육화의 필요성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교·강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음악교육자 양성에 대한 현황은 실용음악교육이 아닌 클래식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용음악의 입지가 점점 확고해지고 발전해가는 상황 속에서 실용음악 또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클래식으로의 편중되어 있다.

필자는 음악교육자 양성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교직과정과 교대 및 사대에 설립된 음악교육과의 교육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찾았다.

첫째로 대학의 클래식과 실용음악과에서의 교직과정 설립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음악 관련학과가 있는 국내 33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교직과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사실 교직과정은 자신의 전공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사를 하였다. 자신의 연주 능력과 교수법은 비례하지 않으므로 따로 전문적인 교수법을 익히고 실기 수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고 공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세분화된 지도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5]

둘째로 이러한 교육자과정의 결여는 비단 대학의 교직과정 여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10여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교(이하 교대·사대)의 음악교육과 커리큘럼을 조사해본 결과도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사실 직접적으로 교사를 배출해 내고 있는 교대·사대의 경우는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대·사대의 커리큘럼은 대부분이 비슷한 강의명과 강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전공 관련 수업을 예로 들면 시창청음, 지휘법, 반주법, 합창, 합주, 서양음악사, 화성학, 대위법, 국악개론, 국악반주법 등이 있다. 하지만 전공 필수과정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에 있어서도 실용음악과 관련한 강의내용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전공선택 과목의 일환으로 ‘실용음악지도법’, ‘실용반주법’, ‘대중 및 실용음악’ 등 소수 과목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과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전공필수 수업에 실용음악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실용음악의 기초나 기본적인 바탕지식을 고전음악에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실용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여겨진다. 실용음악이 학문적 가치로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용음악의 공교육화에 있어서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 및 강사가 실용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그에 대한 배경지식, 역사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일은 만무하다.

일반 음악대학교의 커리큘럼도 조사해 보았다. 실용

음악과 클래식대학 별로 5개의 대학을 조사해 본 결과는 이렇다.

우선 클래식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단국대는 교직과정 수업은 존재했으나 전공 지도·교수법과 관련한 수업내용은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피아노과만이 공통적으로 전공 교수법을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중앙대학교의 피아노과에서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수법 수업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중앙대학교 피아노과에서는 2학년 때 부터 시작하여 피아노교수법, 지도철학/방법, 지도분야/실습 등을 기초 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지도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대학원과정에서도 피아노 페다고지(교수법)전공을 피아노 전공에서 세분화시켜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부는 아닐지라도 클래식음악대학에서는 지도법을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6]

실용음악대학은 위와 같은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를 포함하여 단국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단국대학교에서만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화예술교육사과정의 일부로써 수업을 받는 음악교육론, 음악교수학습방법 이외에는 전공 관련 교수법 수업이나 음악교육과 관련한 그 이외 수업이 없었다.[7]

이를 통해서 실용음악교육법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교의 커리큘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실용음악과 관련한 강의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입학기준에 있어서도 클래식음악을 전공한 학생만이 아닌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의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용음악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교직과정을 마련하여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음악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직과정을 밟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음악교육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많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용음악과의 입학수준 및

졸업수준에서 실력의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용음악과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결론

교육은 어떤 학문이던 간에 가장 중요시 되고 기초적인 것이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는 허술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문적 성취와 발전 가능성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용음악도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교육과 기초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서 음악적인 폭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대중음악은 아직까지 역사가 매우 짧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수들의 실력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소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한 가수들에게 실력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예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음악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기존 학원중심의 입시교육을 벗어나 학교라는 국·공립기관 안에서 절차적 학습을 통해 음악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에서 설명했지만 대중음악이라는 영역이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필드에서의 경험이 중요시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음악학에 대해서 혹은 대중음악이론에 대해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력으로 모두 바뀔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을 받아 쌓은 기초와 음악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필드에서의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음악이 음악적인 면에서나 음향적인 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k-pop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전문가들과 교수들만이 아니라 그 외의 수많은 음악가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대중음악을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그에 대한 방안 즉, k-pop의 세계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교육

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k-pop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직까지 k-pop의 전망이 밝은 만큼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시 될 것이다.

References

- [1] doopedia,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11123001254680
- [2] Ulsan arts high schhol, <http://www.ulsanart.hs.kr/index.jsp?SCODE=S0000000262&mnu=M001009003>
- [3] HanIngu, “[Moanful minor agency①] 60% of Matketplace is occupied by five major agency, "Music industry system is dangerous”, 『xportsnews』, 2014/5/1
- [4] H.G.Choi, The Study Of Way Of Development In Korean Popular Music Business Following K-Pop Fever, Dankook University, 2012
- [5] J.N. Kim,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K-Pop, Dong-a University, 2012/12
- [6] J.G. Yun, A study on the K-Pop as new Korean Wave, Hanyang University, 2013/3
- [7] P.S. Kim, J.H. Kim, Analysis of Success and Threat Factors for the K-POP by Comparing Spread Process betwee Japanese Animation snd K-POP,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the 7th volume number 4, 2013/12/17

조 승 현(Seung-Hyun Cho)

[준회원]



- 2013년 6월 : 세종음악콩쿨 클라리넷부문 1등 수상
- 2013년 7월 : 제26회 국제학생콩쿨 클라리넷부문 1등
- 2014년 11월 : 2014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수상 KAIS
- 2014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관심분야>

Economic, K-pop, Music Business, Vocal